

「여성칼럼」

암세포와 하나님의 사랑

강지용 권사 (이촌9순) / 1996

암에 대한 나의 소고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암으로 잃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다. 암이란 병 때문에 얼마나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 - 암이 나에게서 최상의 원수였다. 요즘도 누가 암 선고를 받았다하면 내 가슴은 저린다. 암은 왜 생길까 -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시는가 - 왜 허락하시는지 - 나는 암 전문의는 아니지만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틈틈이 그 정보를 듣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는 침범을 못하게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도 암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승리」라는 제목을 놓고 글을 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우리 인간들은 암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암의 원인은 암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유전인자를 공격하여 정상세포의 기능을 파괴시킨 결과라 알고 있다.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메카니즘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

암세포는 매우 사탄적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양쪽 성질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 지금 이 지면에 기록해보고 싶다.

첫째로 정상세포는 사랑을 받고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며 성장하는데, 암세포는 사랑과 관계 없이 오히려 미움 속에서 더 잘 성장한다.

둘째, 정상세포는 조직 속에서 마치 동양의 삼강오륜을 지키듯 질서를 유지하는데 암세포는 무질서하게 자라며 다른 세포와 절대 협동을 하지 않는다.

셋째, 성장세포는 희생할 줄을 안다. 세포의 수명으로 죽음(programed cell death)을 각오하나 암세포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이다.

넷째, 부모세포(선대세포)를 존경하고 그 뜻에 따르며 같은 기능을 유지하나 암세포는 선대 세포와 상관없이 기능을 제멋대로 행한다.

다섯째, 정상세포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살며 이곳 저곳 다른 곳에 이전하지 않는데 암세포는 태어난 장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장기로 아무 곳이나 이전한다.

이상의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는 마치 우리가 쉽게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런 것의 대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세포의 집단이며 세포의 성질이 인간의 성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세포의 성질이 인간사회 질서의 근본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를 보고 여섯째로 정상세포는 하나님적이고 암세포는 사탄적이다 하는 것을 추가하고 싶다.

언젠가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로부터 폐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듣고 또 예루살렘의 그 당시 비극을 알고 나는 문득 암환자의 비극은 예루살렘의 비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몸이 예루살렘이라면 암의 비극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비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예레미야가 외친 것 같이 암환자에게도 외쳐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암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태초에 알고 계셨다. 아마 20세기 전후에서 암이 인간의 사망순위 1위를 차지할 것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 육체를 버리고 다시 살리기 위해 잊지 않고 우리 세포 속에 수명인자 (longevity gene)를 넣으시고 성인병을 허락하시며 누구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셨다. 어쩌면 하나님은 성인병이 아닌 암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시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암세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포는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잘못이 아닌, 불가분의 병은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어김으로써 계속되는 공해물질, 과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세포의 기능을 상실케하며 세포의 활동을 더욱 촉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도 점점 결핍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994년 미국의 마이클로즈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유전자 안에 수명인자 P53 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965세를 산 무드셀라 연구라 칭함). 그 후 암세포에는 P53 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암세포를 실험관에 넣고 극히 양호한 환경에서 키운 결과 P53 이 놀랍게도 다시 소생되었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이것을 보더라도 필경 암은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아직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이 삶을 지켜보시며 「나 여호와와는 이미 세워진 영적 법칙이 있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게하라」 하시는 것이 아닐까 -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언젠가 하용조 목사님이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간 「나도 가짜다」 하고 마음 속에서 외쳤던 생각이 난다. 정말 기적으로 병났 기관 얼마나 어려운가! 죄지은 우리의 사랑이란 너무나 허약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며 의지하라고 하시지 않는가!

지금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를 유물론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암의 치유도 다른 질병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원인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에 대응하는 인간 치료법의 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한다.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며 우리는 그것을 확고히 믿는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영적이면서도 지극히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한 생명을 분해하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 죽음이란 이 땅에서 육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의 생명의 최소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요 그 생명은 사랑으로 생존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명과 사랑과 영생은 늘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의 생명은 물론 세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도 성령님이시다. 육체의 생명이 정지되었을 때 육체는 남아있고 성령님 만이 떠나신 것이다. 우리 육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포의 역할을 보라. 세포는 철두철미하게 사랑과 봉사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 원칙 아래에서만 건전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세포 속에서도 모든 기능을 사랑으로 엮으신 것이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보자.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유전자에 스페어 유전자(인트론 : 55% 차지)를 예비해 두셨는데 최근에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실험으로 입증하게 하셨다. 이 스페어 유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난 유전자를 물리치고 정상 유전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모든 원소의 돌레를 돌고있는 전자를 유사시에는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열을 초능력으로 발사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초현상의 나타남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명령하시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암세포는 또 다른 성질이 있는데 열에 약하다는 것과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사랑의 생명력 있는 정상세포와는 다른가.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암세포를 찾아와야 한다. 사랑은 진리요 진리는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신다. 생명은 육과 영이 합해져 있고 영은 육을 지배한다. 육의 치료라 해서, 물질의 치료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의 치료,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포실험에서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치료광선을 발하리니 (말라기 4:2)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나타낸 것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